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腹藏 목판인쇄본 典籍에 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 Research on the Woodblock Prints
Stored Inside the Plastic Statue of Vairocana Buddha in Girimsa Temple

金 聖 洙 (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 中 朝鮮前期 목판인쇄본의 분석 |
| 2. 祇林寺 塑造 毗盧遮那佛 腹藏 典籍의 개요 | 5. 결 론 |
| 3.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 中 고려시대 목판인쇄본의 분석 | <참고문헌> |

< 초 록 >

佛腹藏은 『造像經』에 입각하여 엄밀한 격식에 의하여 一定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그러나 腹藏 中 法舍利로 入藏되는 佛典들은 해당 伽藍을 守護하는 승려들의 選好도와 宗派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佛腹藏은 해당 사찰과 관련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역사 및 그 正體性を 규명할 수 있는 端緒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 典籍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特性을 導出함으로써 기림사의 역사적 正體性を 규명하고자 하였다. 本考에서는 기림사 비로자나불에 복장된 '54種 71冊'의 고려시대 및 朝鮮前期의 목판인쇄본들을 書誌的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림사는 ① 고려시대에는 華嚴類와 法華類 및 禪宗類의 典籍들을 重視하고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高麗後期 天台宗' 계열의 승려들이 住錫하였을 蓋然性이 농후하였다. ② 16세기 中期까지의 조선 前期 시대에는 法華類와 禪宗類 典籍들을 집중적으로 信奉하는 이른바 조선 禪宗의 후예들이 이 가람을 수호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要語: 祇林寺, 塑造毗盧遮那佛, 腹藏本, 고려시대 목판인쇄본, 朝鮮前期 목판인쇄본

< ABSTRACT >

The act of storing Buddhist objects inside the statue of Buddha is secretly and strictly done based on the scriptures of building statues *Josanggyeong*(造像經). Buddhist scriptures stored as treasures of Buddhist canon are decided by the preferences and sects of monks who guard the particular temple. Therefore those Buddhist scriptures stored inside could document the history and identity of a temple without its own historical records. In this research, it is attempted to figure out the historical identity of Girimsa Temple by analyzing the content of Buddhist scriptures stored inside the plastic statue of Buddha in Girimsa Temple. A bibliographical analysis of '54 titles, 71 volumes' of Goryeo and Joseon wood block prints found inside the plastic statue of Buddha in Girimsa Temple shows the following results. ① It is very possible that in Goryeo period there were settled the monks of Tiantai Buddhism, valuing the prints of the scriptures of the Avatamska Sutra, the Sutra of Lotus, and the Zen Buddhism, and strictly following their doctrines in Goryeo period. ② In the early Joseon period till the 16th century, the descendents of Zen Buddhism who intensively stressed the scriptures of the Sutra of Lotus and the Zen Buddhism guarded in Girimsa Temple.

Key words: Girimsa Temple(祇林寺), Plastic statue of Vairocana Buddha(塑造毗盧遮那佛), Books stored inside Buddha statue(腹藏本), Woodblock prints in Goryeo(高麗) period, Wood block prints in Joseon(朝鮮) period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17년 11월 27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8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0일
서지학연구, 제72집, 99-122,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99]

1. 서론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하는 舍月山 祇林寺는 7세기 前期(643: 善德女王 12)에 창건된 유서 깊은 古刹이다.¹⁾ 기림사의 金堂이라 할 수 있는 大寂光殿²⁾에는 塑造毘盧舍那三尊佛坐像³⁾이 봉안되어 있다. 그 本尊佛인 ‘비로자나불 좌상’⁴⁾ 腹藏에서 ‘54種 71冊’에 이르는 다량의 典籍類와 함께 2매의 <改金重修發願文>이 발견되었다.⁵⁾ 이들 복장 전적은 11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제작된

- 1) ‘祇林寺’라는 사찰 명칭은 석가모니 생전 당시 설립된 인도 ‘祇園精舍’를 뜻한다. 643년에 天竺國의 승려 光有가 창건하여 ‘林井寺’라 부르던 것을, 뒤에 元曉가 重創하여 머물면서 ‘祇林寺’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三國遺事』에 “신라 31대 神文王이, 동해에서 용으로 化한 先王으로부터 萬波息笛이라는 피리를 얻어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림사 서편 시냇가에서 잠시 쉬어갔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통일신라 초기인 신문왕 이전에 창건되어 있었던 古刹이다. 고려 말에는 覺猷가 이 절의 주지로 있었다. 그 뒤 1578년(선조 11)에 竺禪이 重建하였고, 正祖 때에는 경주부윤 金光默이 私財를 희사하여 크게 重修하였다. 1862년(철종 13) 경에는 대화재로 113칸의 당우가 재가 되었으나, 다행히 ‘慶尙道營主題名記’·‘東都歷世諸子記’·‘府戶長先生案’ 등 중요한 文籍과 근세조선 역대 왕의 御筆 등이 보관되어 있다. 이듬해 봄에 사찰의 승려들이 부윤 宋廷和(宋廷和) 등의 시주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여 가을에 복원한 것이 현재의 건물이다. 1878년(고종 15)의 중수를 거쳐, 1905년에 慧訓이 다시 중수하였다. ‘31본산’ 시대에는 월성군 일대를 관장하였으나, 현재는 불국사의 末寺로 있다.
- 2) <보물 제833호>.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배흘림기둥 및 맞배지붕의 다포식 건물로, 외관은 本殿 건물다운 웅장함을 갖추었고, 내부는 넓고 화려하여 장엄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장대석의 낮은 기단에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전면은 모두 화려한 꽃살분합문을 달았다. 공포는 외3출목, 내5출목으로 살미첨차 끝의 양서에 연봉이 초각되고, 첨차하부가 교두형을 이룬 전형적인 17세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내부는 4개의 고주 외에 따라 2개의 전면 고주를 세워 넓은 공간을 견실히 구축하였으며, 빗천장과 우물천장을 설치하였다. 견실한 구조와 장엄한 공간 구성이 돋보이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佛殿의 하나이다. 이러한 대적광전에서는 1997년 해체 공사 때 4종의 중도리 墨書가 발견되었다. 이 묵서에 의하면 1629년에 5차 중수에 해당하는 改重建上樑이 있었고, 1755년에 대웅전 改造重修가, 1785년에 6차 중창이 있었다. 아마도 기림사의 金堂에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이 봉안되면서, 존상에 걸맞게 그 명칭도 ‘大寂光殿’으로 개칭된 듯하다.
- 3) <보물 제958호>. 조선 중기의 佛像으로, 그 중앙에는 法身인 毗盧遮那佛, 왼쪽에는 報身인 盧舍那佛, 오른쪽에는 化身인 釋迦牟尼佛이다. 불상의 높이가 각각 3.6m나 되는 비교적 大型 佛像(坐像)에 속한다. 비로자나불상 내부에서 ‘54권 71책’에 이르는 다량의 腹藏典籍類와 함께 2매의 <改金重修發願文>이 발견되었다. 1719년에 작성된 개금중수기를 통하여, 1564년에도 불상 개금이 있었던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들 불상의 조성년대는 ‘1564년 이전’이라는 下限이 밝혀졌다. 즉, 비로자나불 불상 내부에서 <慶州府同舍月山祈林寺大雄殿毘盧遮那如來重修鍍金化土檀越學比丘及引勸祭祀發願文>과 <慶州府同舍月山祈林寺大雄殿西方極樂世界阿彌陀如來重修鍍金化主及引勸諸師學檀越緣化比丘示發願文>이 발견됨으로써, 이들 삼불의 尊名이 ‘비로자나불(지권인), 동방약사불, 서방아미타불’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문의 내용은 毘盧遮那와 阿彌陀如來의 改金 및 鍍金 관련 기록으로, 그 가운데 ‘嘉靖甲子一重修’라는 내용이 있어 ‘1564년’에 1차례 중수가 있었고, 다시 ‘1719년’에 改金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1719년 改金佛事 때의 시주자로 기림사 인근에 있는 골굴암, 불국사, 오어사, 보경사 등의 승려와 지역민들이 등장하는 점도 흥미롭다. 불상은 塑造像으로, 내부에 향나무로 木心을 받치고 그 위에 점토를 붙여 형태를 만들었다. 이 불상에 사용된 흙은 사찰 근처에 있는 소토 성분과 같아 재료를 구하기 쉬운 용이성과 경제적인 장점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발견된 <개금중수기>에서 ‘1564년에 중수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大型 塑造佛. 이후 法住寺에 5미터가 넘는 大型 毘盧遮那三尊坐像이 조성·등장하는 사례가 있다.
- 5) 1986년 문화재 절도범들에 의하여 塑造 毗盧遮那佛像의 腹藏物을 절취하여 도주하였는데, 그 후에 절도범들을 체포하고, 이들 문화재를 수습한 것이다.

寫經과 木板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 전적들은 折帖裝·蝴蝶裝·包背裝·線裝 등 다양한 古書 裝幀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단일 불상의 腹藏에서 발견된 전적으로서 가장 희귀하고도 탁월한 자료의 판본이 많아서, 형태서지학 및 불교사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佛腹藏은, 1~2세기 간다라 불상의 頂髻 속에 舍利를 봉안한 것에서 淵源되어, 중국으로 건너와 ‘像身 개념의 대두와 佛像 속의 臟器模型 奉安의 전통’에서 由來된 것이다.⁶⁾ 여기에서 經典 등 佛典들은 이른바 法舍利의 개념으로 봉안되었다. 특히 遼나라 시대의 佛像 중, 중국 山西省 應現 佛宮寺 釋迦塔(1056) 4층 중앙의 본존불인 塑造像 釋迦牟尼佛⁷⁾ 내부 하복부 부분의 長方形 豎槽 안에는 다량의 經典이 정연하게 봉안되었음이 주목되었다. 바로 ‘이 腹藏孔의 주된 기능은 末法時代의 도래에 대비한 聖物, 특히 佛經의 안전한 保全에 있었다’⁸⁾ 주장하였다.⁹⁾ 이와 같이 佛腹藏에 佛典이 납입된 기능에는 ‘法舍利로서의 기능’과 ‘經典의 永久保存이라는 기능’이 동시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

佛腹藏은 「造像經」에 의하여 엄밀한 격식을 갖추어 一定하고도 秘密스럽게 진행된다. 그런데, 불복장에 法舍利로 入藏되는 典籍類들은 그 시대와 對象 佛像에 따라서 실로 다양하고 異彩로운 현상을 보인다.¹⁰⁾ 이는 ‘佛腹藏 典籍은 그 대상의 佛像 및 당시 伽藍을 수호하는 승려들의 選好도와 宗派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法舍利인 腹藏典籍은 당시 그 가람의 特性和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佛典에 局限하여 選定·入藏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기림사 塑造毗盧遮那佛 복장 전적 중, 특히 ‘고려시대 및 조선前期의 목판인쇄본’에 集中하여 그 書誌的인 特徵과 價値 등을 導出함으로써, 16世紀前期 이전까지의 기림사에 대한 역사적 正體性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6) 佛腹藏과 그 儀式 및 點眼儀式 등을 거친 佛像은 드디어, 이른바 살아있는 生命體와 같은 ‘信仰의 對象’으로 崇拜된다. 즉 佛像 그 자체가 佛身化된다는 개념이다. 이때 法舍利인 經典 등도 法身의 개념에서 佛身의 개념으로 昇化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7) 이 불상 속에서 160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8) Hsueh-man Shen, “Buddhist Relic Deposits from Tang(618~907) to orthern Song(960~1127) and Liao(907~1125)”, PhD diss., St Hugh’s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2000. pp.219-220.(이승혜, “중국 불상의 聖物 봉안: 정점과 과제,”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106. 再引用).
9) 즉, 납입된 경전에 대장경 3部인 經·律·論이 모두 포함된 것은 末法의 시대에 佛像 안에 佛法을 복원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上揭論文, 106).
10) 즉, 釋迦牟尼佛 阿彌陀佛 毗盧遮那佛 藥師如來佛 觀世音菩薩像 地藏菩薩像 등등의 對象佛像에 따라서 그 入藏되는 腹藏經도 다르고, 또한 시대에 따라서도 그 入藏 典籍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남권희 교수가 정리한 ‘복장유물 목록’에서의 ‘典籍類’(남권희, “『조상경』 판본의 서지적 연구,”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191-194.)만 살펴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2. 祇林寺 塑造 毗盧遮那佛 腹藏 典籍의 개요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주 기림사 塑造 毘盧遮那三佛 坐像'¹¹⁾ 중에서 중앙의 本尊佛이 바로 毗盧遮那佛이다. 바로 이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1719년에 작성된 2종의 發願文과, 아래 <표 1> ~<표 3>에 제시된 '고려시대의 寫經 및 고려·朝鮮前期 목판본 54種 71冊'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54종 71책'은 1988년 11월에 <보물 제959호>로 일괄 지정되었다.¹²⁾



<사진 1> 祇林寺 大寂光殿 毘盧遮那三尊佛 坐像¹³⁾

첫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본 腹藏의 고려시대 寫經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橡紙銀泥寫經이 6種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①『大般若經』 3種(卷210, 卷259, 卷561), ②『放光波羅密經』 卷12' 1種, ③『佛設大方光十輪經』 卷5' 1種, ④『大方廣佛華嚴經』 卷25' 1種 등으로, 橡紙銀泥寫經은 도합 '6種 6卷 6帖'이다. 특히 『大般若經』 卷210'에는 그 卷末에 “戊子四月 二十二日書”라는 기록 및 그 年度의 表記方法과 사경의 품격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 충목왕(忠穆王) 당시의 戊子 즉, 1348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¹⁴⁾ 2) 紫色紙銀泥 『等集衆德三昧經』 卷下

11) <보물 제958호>. 비로자나불 腹藏에서, 1719년에 작성된 改金重修記를 통하여, '1564년에도 佛像 改金이 있었음'이 확인됨으로써, 이들 불상의 造成年代 下限은 '1564년'임이 파악된다.

12) 1986년 이후에 수습된 복장 전적 가운데, 낱장 등 결실이 많은 寫經(4種)과 17세기에 간행된 목판본(8종) 등은 국가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13) 사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4) 이에 따라 <표 1>의 '고려시대 사경' 중 2)~6)의 사경도 이 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卷 1帖’, 3) 白紙金泥 「장수멸죄경」 ‘1권 1첩’, 4) 紺紙銀泥 「法華經」 卷2 ‘1권 1帖’, 5) 紺紙金泥 「法華經」 卷25 ‘1권 1帖’이 있다. 이들 사경의 裝幀 형태는 모두 折帖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비로자나불 복장 고려시대 사경은 모두 ‘10種 10卷 10帖’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표 1> 기림사 소조 비로자나불 腹藏 고려시대 寫經¹⁶⁾

구분	書名	數量	年度	形態
고려시대 寫經	1. 橡紙銀泥 大般若經 卷210	1卷 1帖	1348	折帖裝
	2. 橡紙銀泥 大般若經 卷259	1권 1첩	1348	折帖裝
	3. 橡紙銀泥 大般若經 卷561	1권 1첩	1348	折帖裝
	4. 橡紙銀泥 放光般若波羅密經 卷12	1권 1첩	1348	折帖裝
	5. 橡紙銀泥 佛設大方光十輪經 卷5	1권 1첩	1348	折帖裝
	6. 紫色紙銀泥 等集衆德三昧經 卷下	1권 1첩	1348	折帖裝
	7. 白紙金泥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권 1첩	1370 ¹⁷⁾	折帖裝
	8. 紺紙銀泥 妙法蓮華經 卷2	1권 1첩	高麗末	折帖裝
	9. 橡紙銀泥 大方廣佛華嚴經 卷25	1권 1첩	高麗末	折帖裝
	10. 紺紙金泥 妙法蓮華經 卷6	1권 1첩	高麗末	折帖裝

둘째, <표 2>에서 제시되고 있는 ‘고려시대 목판본 27種’에 대한 腹藏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본 복장의 고려시대 목판본은 우선 그 裝幀의 형태가 다양한 것이 그 첫 번째의 특징이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희귀한 胡蝶裝이 2種, ② 흔하지 않은 包背裝이 3種, ③ 線裝本이 1種(12권 9책), ④ 나머지 21種은 折帖裝(帖裝) 형태를 이루고 있다.

2) <표 2>의 고려시대 목판본에는 내용적으로 희귀한 佛典이 많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즉, ① ‘2. 「수능엄경」 권4~7, 권8~9’는 1309년(忠宣王 1)에 ‘僧統 冲昱’과 ‘道人 覺源’ 등이 당시 유행하던 大字의 舊本을 휴대하기 편리한 小字로 다시 새겨(木板) 간행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② ‘1. 「華嚴經疏」 卷97’은 大覺國師 義天和 친교가 깊었던 중국의 華嚴法師 淨源이 註釋한 것으로, 의천은 이 책의 板刻을 정원에게 부탁하였고, 의천의 喜捨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정원법사가 고려로 보내 온 宋板에서 인쇄한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③ ‘16. 「父母恩重經」’은 1300년(忠烈王 26)에 간행된 異本이라는 특징을 지닌다.¹⁸⁾ ④ ‘14.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上’·‘18. 「佛說佛母出生三法藏般若波羅蜜多經」’·‘22.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率蓋摠持」’·‘25. 「法華三昧懺助宣講儀」 卷下’ 등도 새롭게 보는 희귀한 자료이다.

15) 本考는 기림사 비로자나불 복장전적 중에서 木板印刷本에 국한하여 논술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高麗寫經에 대한 논술은 생략하고자 한다.

16) 천혜봉, 박상국, 「祇林寺毗盧遮那佛腹藏典籍調查報告書」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8.8), 3. 參考.

17) 이 책의 卷末 기록의 施主 사항에 ‘吳仲華’가 있다. ‘吳仲華는 1371년에 死亡’한 것을 근거로, 이 사경의 제작년도는 ‘1370년’을 그 下限年度로 추정하고 있다.

18) 즉, 기존의 판본인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書名(經名)에서 ‘大報’가 생략되었고, 變相圖가 없으며, 上·中·下的 3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은 부분적으로 더 부연한 것 외에는 기존 판본과 비슷하다.

<표 2> 기림사 소조 비로자나불 腹藏 고려시대 목판본¹⁹⁾

구분	書名	數量	年度	形態
고려시대 木板本	1. 大方廣佛華嚴經疏 卷97	1권 1첩	高麗末	胡蝶裝
	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4~7, 卷8~9.	6卷 2冊	1370	胡蝶裝
	3. 大方廣佛華嚴經 卷26	1권 1첩	高麗 肅宗	折帖裝
	4. 大方廣佛華嚴經 卷48	1권 1첩	12~13世紀	折帖裝
	5. 大方廣佛華嚴經 卷79	1권 1첩	12~13世紀	折帖裝
	6. 大方廣佛華嚴經 卷10	1권 1첩	12~13世紀	折帖裝
	7. 大方廣佛華嚴經 卷53	1권 1첩	12~13世紀	折帖裝
	8. 大方廣佛華嚴經 卷22	1권 1첩	12~13世紀	折帖裝
	9. 大方廣佛華嚴經 卷55	1권 1첩	12~13世紀	折帖裝
	10. 大方廣佛華嚴經 卷74	1권 1첩	13~14世紀	折帖裝
	11. 妙法蓮華經 卷3, 卷6, 卷7	3권 3첩	1236	折帖裝
	12. 妙法蓮華經 卷1	1권 1첩	麗末鮮初	折帖裝
	13. 妙法蓮華經 卷6	1권 1첩	高麗末	折帖裝
	14.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上	1권 1첩	麗末鮮初	折帖裝
	15. 佛說父母恩重經	3권 1첩	1300	折帖裝
	16.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첩	1378	折帖裝
	17. 金光明經 卷1	1권 1첩	高麗末	折帖裝
	18. 佛說佛母出生三法藏般若波羅蜜多經 卷12	1권 1첩	高麗後期	折帖裝
	19.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1권 1첩	1342	折帖裝
	20.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1권 1첩	高麗後期	折帖裝
	21.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豫修十王生七經)	1권 1첩	高麗末	折帖裝
	22.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率蓋摠持	1첩	1375	折帖裝
	23. 法苑珠林 卷22	1권 1첩	高麗 高宗	折帖裝
	24.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之2	1권 1冊	高麗末	包背裝
	25. 法華三昧懺助宣講儀 卷下	1권 1책	1378	包背裝
	26. 妙法蓮華經 卷7	1권 1책	1370	包背裝
	27. 禪門拈頌集 卷5~6, 卷7~8, 卷9~10, 卷11~12, 卷13~14, 卷17~18, 卷19~20, 卷25~26, 卷27~28	12卷 9冊	高麗 高宗	線裝

셋째, <표 3>에 제시된 조선시대 初期 목판본 간행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표 3>의 '2. 『首楞嚴經』 권2, 권3, 권4'의 3권 3책은, 1401년(太宗 1)에 太祖가 太上王으로 있으면서 信聰에게 글씨를 쓰게 하여 관각한 『(大字)楞嚴經』이다. 이는 조선 초기의 독자적인 판본에 해당된다.

19) 천혜봉, 박상국, 『祇林寺毗盧遮那佛腹藏典籍調査報告書』(서울: 문화재관리국, 1988.8), 3-5. 參考.

<표 3> 기림사 소조 비로자나불 腹藏 조선시대 前期 목판본²⁰⁾ 등

구분	書名	數量	年度	形態
조선 前期 목판본	1. 妙法蓮華經 卷7	1권 1책	世祖年間 (1455-1468)	折帖裝
	2.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권 1첩	1431(世宗 13)	折帖裝
	3.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2, 卷3, 卷4.	3권 3책	1401(太宗 1)	包背裝
	4. 妙法蓮華經 卷5	1권 1책	世祖年間 (1455-1468)	包背裝
	5. 大報父母恩重經 [合刻] 長壽減罪經	1책	1462(世祖 8)	線裝
	6. 妙法蓮華經 卷4~7	3권 1책	1436(世宗 18)	線裝
	7. 妙法蓮華經 卷3~4	2권 1책	世宗年間 (1418-1450)	線裝
	8. 妙法蓮華經 卷1, 卷4.	2권 2책	世祖年間 (1455-1468)	線裝
	9. 妙法蓮華經 卷5~7	3권 1책	1474(成宗 5)	線裝
	10. 妙法蓮華經 卷3~4, 卷5~7.	5권 2책	1527(中宗 22)	線裝
	11. 牧牛子修心訣	1책	1441(世宗 23)	線裝
	12. 佛說長壽減護諸童子陀羅尼經 [合綴] 大報父母恩重經	1책	1443(世宗 25)	線裝
	13. 禪門三家拈頌集 卷1~2, 卷3~4, 卷5~6.	6권 3책	1464(世祖 10)	線裝
	14. 觀世音菩薩禮文 [合綴] 佛說阿彌陀經	1책	1465(世祖 11)	線裝
	15. 大藏一覽集 卷10	1권 1책	世祖年間 (1455-1468)	線裝
	16. 禪宗唯心訣 [合綴] 五代真言 등	1책	1500(燕山君 6)	線裝
朝鮮前期 筆寫經	白紙墨書地藏菩薩本願經	3권 1책	1459(世祖 5) 寫	線裝

2) <표 3>에서는 특히 世宗·世祖·成宗 年間に 집중적으로 간행된 『法華經』類가 무려 7種이나 되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즉, '6. 『법화경』 권4~7(1436: 世宗18)'과 '7. 『법화경』 권3~4'는 世宗 시대에 간행되었고, '1. 『법화경』 권7'과 '8. 『법화경』 권1, 권4(2권 2책)' 및 '4. 『법화경』 권5'는 世祖年間に 간행되었으며, '9. 『법화경』 권5~7'이 1474년(成宗 5)에 간행되었다. 이처럼 세종·세조·성종 시대에 간행된 『법화경』만 6種이나 入藏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법화경』의 간행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13. 『禪門三家拈頌集』'은 高麗本을 重修하여 조선시대(世祖)의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으로, 희귀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표 1>~<표 3>에 나타나는, 경주 기림사 塑造毗盧遮那佛 腹藏의 典籍은 '① 고려시대의 寫經群, ② 고려시대의 木板印刷 佛書, ③ 조선시대 前期의 목판인쇄 불서' 등으로 3구분될 수 있으며, 일괄 '54건 71책'으로 나타난다. 그 중, ① 寫經은 고려 1348년(忠穆王 4)으로 추정되는

20) 천혜봉, 박상국, 『祇林寺毗盧遮那佛腹藏典籍調査報告書』(서울: 문화재관리국, 1988.8), 5-6. 參考.

‘椽紙銀泥大般若經」 권210’ 등 10帖이 확인되었고, ② 목판본은 고려 肅宗年間(1096-1105)에 조성된 목판에서 13세기 초반 印出된 것으로 추정되는 ‘大方廣佛華嚴經」卷26’을 비롯하여 高麗末 印出本으로 보이고, ③ 조선 초기의 木板 印출본 및 1500년(燕山君 6)에 陝川 鳳栖寺에서 板刻·印出한 ‘禪宗唯心訣」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²¹⁾

3.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 중 고려시대 목판인쇄본의 분석

본 장에서는 <표 2>에 제시된 ‘고려시대 木板本 27種’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들 목판본들은 ‘그 裝幀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제2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즉,

① <표 2>의 장정 형태 중 折帖裝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라 지적하였다. 그 제작 시기별로 보면, 이들 절첩장 도서의 제작년대는 ‘12세기부터 朝鮮初까지’ 꾸준히 지속된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아마도 이는, 신라시대부터 13세기 중기까지 지속되어 오던 卷子裝²²⁾의 단점을 개선하여, 독서 및 念誦의 편리성 때문에 각광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② <표 2>의 첫머리에 보이는 胡蝶裝 2種은 1370년 刊記와 高麗末의 것이라 추정된다. 그 중 ‘淨源疏’라 지칭되는 ‘1. 『華嚴經疏』 卷97’은, 대각국사 의천이 宋 淨源에게 부탁하여 宋나라에서 제작된 목판이 고려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宋代 당시 장정법인 胡蝶裝으로 제책된 것이다. 그런데 1370년 刊記의 ‘2. 『首楞嚴經』 卷4~7, 卷8~9(6권 2책)’²³⁾²⁴⁾은 1309년에 고려에서 그 底本이 다시

21) 게다가 寫經과 여러 木板本에서 확인되는 조성 목적과 그 시기 및 장소, 그리고 그 조성에 관여했던 人物 등에 대한 다양한 情報는 조성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22) 팔만대장경(高麗再雕大藏經)의 印本은 13세기 前期에 조성된 卷子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3)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2>에는 ‘『수능엄경』 권4~7만 鈔影·수록되어 있어서, ‘권8~9’의 검색은 不可함.

『首楞嚴經』: 唐나라 般刺蜜帝가 漢譯한 것을 宋나라 戒環이 주해한 10권본을 목판에 새겨 찍어 낸 것. 이 경전은 ‘분별하는 버릇을 버리고 자신에게 佛性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고, 大白傘蓋陀羅尼의 공덕으로 모든 마장을 물리치고 선정에 전념하여 如來의 진실한 智見을 얻어, 生死의 미계로부터 벗어나는 수행방법 등’을 설하고 있다.

위 본문 ‘2. 『수능엄경』 권4~7, 권8~9’ 2종(6권2책)에서 그 卷末誌文에 보면, “당시 大字의 舊本이 있으나 수행승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여, 1309년(충선왕 1)에 細字로 써서 다시 새겨, 200질을 찍어내어 널리 보시하였다. 당시 僧統인 冲晷·道人·覺源 등의 주선으로, 國夫人 鄭氏와 盧氏智月 등의 시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板本은 이때 찍어낸 것이 아니고, 後世에 찍어낸 후쇄본이라 볼 수 있다. 즉, 墨書之記에 의하면, “경술년에 林桂[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와 부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찍어냈음”을 알리는 내용이 있다. 이 책의 인쇄상태·간기·제본형태 등으로 보아 1370년(공민왕 19)인 庚戌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권10 末에 “정통 원년(1436)에 흥덕사에서 전래했다”는 내용의 기록도 있다. 이 책은 판각 및 인쇄 기록이 명확한 고려본일 뿐 아니라 裝幀 또한 한국에서 흔하지 않은 蝴蝶裝인 점에서 매우 귀하게 평가 된다(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2> 해제. 참고).

24)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四~七. 書誌: 左右雙邊, 半郭 19.5cm×11.9cm, 無界, 半葉 15行 30字, 註雙行. 책크기: 25.3cm×15.6cm

細書된 것이면서도 호접장으로 장정된 것은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고 하겠다.

③ <표 2>의 하단에 보이는 ‘포배장 3종’은 1370년대 이후부터 고려말까지의 시기에 裝幀된 책들이다. 이는, 조선시대 線裝本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절첩장(또는 호접장)과 선장본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 장정의 특징이 나타난다.

둘째, <표 2>에 제시된 고려 목판본의 書名 구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이들 중 經典의 사례를 보면, ① ‘2. 『수능엄경』 권4~7, 권8~9’ 2종(6권 2책), ② ‘2.~11. 『화엄경』 권10, 권22, 권26, 권48, 권53, 권55, 권74, 권79’ 8종(8권 8책), ③ ‘11.12.13.26. 『법화경』 권3,6,7. 권1, 권6, 권7’ 4종(7卷 6帖 및 1冊), ④ ‘15.16. 『父母恩重經』’ 2종(2권 2책), ⑤ ‘17. 『금광명경』²⁵⁾ 1종, ⑥ ‘18. 『佛母般若經』²⁶⁾ 1종(1권 1책), ⑦ ‘19.20. 『長壽滅罪經』’ 2종(1342,²⁷⁾ 高麗後期²⁸⁾; 2권 2책) 등 무려 7類의 經典들이 납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화엄경』이 8種으로 가장 많이 납입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화경』이 4種으로 두 번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불교의 禪宗 계열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首楞嚴經』²⁹⁾(楞嚴經)과 『金光明經』³⁰⁾이 각각 1종씩 납입되었음이 또한 주목된다. 특히 <표 2>에서는 『화엄경』 8종과 『법화경』 4종, 즉 두 경전을 합치면 모두 12종이 入藏됨으로써, <표 2>의 27종 佛典 중 44%를 차지할 만큼 이들

25) 『金光明經』: 北涼의 曇無讖이 漢譯한 전체 4권 가운데 제1권이다. 이 경전은 四天王 등 여러 天神들이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을 讀誦하고 講說하는 國王과 백성을 수호하여 國難·기아·재앙·질병 등을 제거하고 國家의 평안과 풍년을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이 경전을 信仰하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무량한 福을 얻는다고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鎮護國家經典으로 尊崇하고 있으며 고려 후기의 간본으로 추정된다. 전엽 36행을 6行씩 절첩하여 제본하였다. 표지는 紺紙이고 金泥의 經名이 묘사되어 있다(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17> 해제. 참고.).

26) 『佛說佛母出生三法藏般若波羅蜜多經』: 宋나라 때 施護가 漢譯한 25권 가운데 제12권이다. 이 경전은 『三法藏經』으로도 약칭되며, 『道行般若經』과 같다. / 般若波羅蜜의 법과 그 受持功德을 說한 경전이며, 고려 후기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장에 결실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누습 자국이 남아 있다(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18> 해제. 참고.).

27) 이 판본은 고려 충혜왕 복위 3년(1342)에 順政郡夫人 安氏가 先亡父母의 離苦得樂과 一門眷屬의 평안을 빌기 위해 간행된 목판에서 찍어낸 후쇄본이다. 卷首 부분이 훼손되고 本文에 결실이 있는 등 보존 상태가 불량하다(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19> 해제. 참고.).

28) 이 책은 唐나라 때 佛陀波利가 漢譯한 경전이다. 인간이 나서 죽고 하는 속에서 오욕칠정에 사로잡혀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업보로 인하여 갖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자기의 죄업을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불법의 심오한 진리와 죄를 멸하고 무병장수하는 방편으로 이 경전을 受持讀誦하도록 하고 있다. / 이 목판본은 ‘前 中郎將 李諧’라는 사람의 시주로 인출한 것으로,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후기 간본으로 추정된다. 갈색의 표지에 ‘佛說長壽滅罪經’이라고 써져 있는 題簽이 붙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20> 해제. 참고.).

29) 『首楞嚴經(楞嚴經)』: 10卷, 唐 般刺蜜帝 번역. 5陰에 의해 발생되는 禪의 魔境 50종을 지적하고, 禪病을 다스릴 것을 강조. 중국에서 성립된 僞經이라고 보는 설도 있음. 宋 시대에 長水子璿이 本經에 의하여 禪教一致를 고취하였음. 한국불교 講院 4教科의 한 과목.

30) 주지하는 바와 같이, 『金光明經』은 『仁王經』과 함께 고려 護國佛敎의 대표적인 經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고려에서는 금광명도량(金光明道場)의 개설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護國經典이 佛腹藏에 납입되는 것은, 佛像이나 사찰을 건립할 때 國家의 平安을 祈願하고 腹藏하는 것은 고려불교에서 지극히 당연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기림사 비로자나불 복장에 납입된 緣由에 관한 눈술에서 『金光明經』에 관한 사항은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다.

「화엄경」·「법화경」에 集中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수 있다. 그밖에 위 <표 2>에 나타나는 經典類로서는 ① 「반야경」의 일종인 「불모반야경」과 ② 돌아가신(先亡) 父母 등의 薦度を 위한 「父母恩重經」과 「長壽滅罪經」 등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에 고려의 목판본 중에서 특히 「화엄경」과 「법화경」 및 「수능엄경」과 「금광명경」 등이 마치 하나의 단위 經典群처럼 結成되어, 이와 같이 한꺼번에 佛腹藏으로 납입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화엄경」은 고려 華嚴宗의 所依經典이고, 「법화경」은 중국 및 한국 天台宗의 대표적인 根本經典이다.³¹⁾ 특히 천태종에서의 天台教觀은 教義理論과 修行實踐方法을 二門으로 나누어 教觀二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二門 중 觀心門(禪的 실천)은 摩訶止觀을 통하여 그 사상체계가 확립되었다. 고려불교에 있어서 義天(1055-1101)은 바로 이러한 고려 천태종을 開創하였고, 게다가 그는 天台智顓(智者)의 「法華玄義」를 강의하면서 이러한 觀心門에 주의하였다.³²⁾ 바로 이와 같은 禪的 실천은 위 <표 2>의 '2. 「首楞嚴經」'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수능엄경」이야말로 禪的 실천의 핵심 경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高麗佛敎史 전체를 조망하여 볼 때, <표 2>에 나타나는 經典 중, 「화엄경」과 「법화경」 및 「수능엄경」의 특징과 성격 등이 한꺼번에 公同적(交集合)으로 관련되는 인물은 대각국사 義天이 唯一하고, 동시에 의천이 開創한 고려 天台宗과 깊은 聯關性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표 2>에서 章疏類는 2종 확인된다. 즉, 이 표의 '1. 「大方廣佛華嚴經疏」 卷第97'과 '24. 「圓覺經略疏注經」 卷上之2'이다.

① '1. 「大方廣佛華嚴經疏」 卷第97'은 宋나라 淨源이 撰述한 「華嚴經疏」 중 「권제97」이 殘卷으로 본 복장에 납입된 것이다. 義天은 중국 유학 중 淨源法事와 華嚴의 깊은 教理를 나눈 바 있었다. 그리하여 의천의 부탁과 喜捨에 의하여, 淨源은 그의 저술인 '80권 「화엄경」'에 대한 章疏인 '120卷本 註釋書'를 목판으로 간행하였고, 이렇게 간행된 宋板 전체가 宋 商人에 의하여 고려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 木板에서 印出한 高麗本 중에서 '권제97'만이 기림사 비로자나불의 복장으로 入藏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이 책은 淨源 당시의 宋의 裝幀法인 胡蝶裝의 특징을 지닌다.³³⁾

② <표 2>의 '24. 「圓覺經略疏注經」 卷上之2'³⁴⁾는, 唐 宗密(780-841)이 「圓覺經」³⁵⁾을 注解한

31) 「법화경」은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법화경」의 思想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會三歸一思想'이다. 즉, 聲聞·緣覺·菩薩의 三乘은 결국 一佛乘으로 歸一하고, 十方佛土에는 오직 一佛乘의 法만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천명하였다.

32) 박용진, 「義天의 佛敎思想」,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247-258. 참고.

33) <보물 제891호, 892호>와 동일한 판본이다.

34) 이 책은 卷子本의 판식에서 印出하여, 이를 包背裝으로 製冊하였다고 판단된다.

35) 「圓覺經」은 唐 佛陀多羅가 漢譯한 것으로, 문수·보현·미륵 등 12보살이 부처님과 나눈 一問一答의 방법으로 전개된, 觀心修行을 위주로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說한 大乘經典이다.

것이다.³⁶⁾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도 위의 章疏가 編入되어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義天은, 그의 前期에는 중국 澄觀의 사상에 입각하여 性宗(『華嚴經』계통)과 相宗(『法華經』계통)을 둘 다 배운다는 性相兼學을 주장하였고, 後期에는 宗密과 新羅 元曉의 사상에 의지해서 會通思想을 전개하였다.³⁷⁾ 즉, 의친은 宗密의 『圓覺經疏』를 중요시하였다. 또한 의친의 思想에서, ‘그가 존숭하였던 화엄사상에는 禪宗의 자취도 발견할 수 있고 天台宗의 흔적도 있다’³⁸⁾는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 고려 목판본 典籍에서 위의 ‘1. 『大方廣佛華嚴經疏』’와 ‘24. 『圓覺經略疏注經』’이라는 두 章疏가 동시 入藏된 緣由는, 高麗佛敎思想史를 조망해 볼 때, 결국 대각국사 義天에서 유래된 고려 天台宗의 영향에서 起因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위와 같이 기림사 비로자나불 복장 전적에는, 佛陀가 깨달은 ‘깨침(道)의 正體’라 할 수 있는 ‘화엄경’에 대한 淨源의 章疏와, 한국불교의 禪宗에서 전통적으로 重要視하였던 ‘원각경’의 章疏, 이 두 章疏가 동시에 비로자나불 腹藏으로 납입된 것이 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는 곧 고려불교 중 敎宗과 禪宗을 통합하여 義天이 開創한 ‘天台宗’에서만 중요시하는 불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려 천태종’에서 重視하였던 禪宗 계통의 眞髓들이 조선시대까지 그 영향이 지속됨으로써,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위 <표 2>에서, ‘14.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上’³⁹⁾과 ‘25. 『法華三昧懺助宣講儀』 卷下’⁴⁰⁾가 入藏된 것은 아주 특별하게 注目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들 佛典은 13세기 이후 圓妙國師 了世⁴¹⁾

36) <표 2>의 ‘24. 『圓覺經略疏注經』’은 淨源의 『大方廣佛華嚴經疏』와 板式·字體 등이 비슷하나, 그 板刻技法이 鑿刻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宋板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을 入手하여 새긴 高麗板本이라 추정된다.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略疏四卷 或 二卷’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본은 상·하의 2권이 각각 1·2로 분할된 2권 4책 중, ‘卷上之二’가 전래된 것이다. <보물 제893호, 제938호>와 동일한 판본이다. 卷子本 형식의 판식에서 10行씩 인쇄하여 包背裝으로 제본한 것이다(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24> 해제. 참고).

37) 이병욱 편저, 『의친』(서울: 예문서원, 2002), 31. 참고.

38) 이병욱(2002), 32. 참고.

39) 『妙法蓮華經三昧懺法』: 이 책은 上卷의 卷末題 사항의 記錄에 ‘傳天台敎觀天幕沙門 釋山巨(산궁) 集’이라고 확인된다. 즉, 중국 天台宗의 沙門 ‘山巨’이, 法華三昧의 수행을 위하여 예불하고 誦經하고 참회하는 行法을 『법화경』에 근거하여 上中下 3권으로 편집한 책 중에서 그 上卷이다. 즉, 중국 후진의 鳩摩羅什이 漢譯한 ‘법화경’ 28품을 12과목으로 나누어 배열하고, 각 과목마다 경문과 偈頌을 추려 뽑아 예불요초로 삼고, 송경하고 참회하는 작관법을 제시하고 있다. / 法華의 懺法에는 본시 隨나라 智顛가 지은 ‘法華三昧懺儀’ 1권이 있다. 그러나 山巨이 纂集한 이 책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 전체를 12개 과목으로 나누어 ‘서품’에서 ‘화성유품’까지 7품을 4과로 나눈 것을 상권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21개품 8과는 중하로 편찬되었다. 참법(懺)은 ‘참의(懺儀), 三昧行法’ 등으로 불리며, 과거의 죄과를 뉘우쳐 고치기 위한 수행법이다(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14> 해제 및 ‘卷上 卷末題 원문 이미지’. 참고).

40) 『法華三昧懺助宣講儀』: 이 책은 죄업을 참회하는 방법에 대한 智顛의 『法華三昧懺儀』를 해석하여 3권으로 편찬한 내용인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다. 이 책의 卷末에 ‘1378년(우왕 4)에 靈岳寺 주지 妙慧가 간행’한 것이며, 간행 때 동참한 『法華靈驗傳』의 저자 圓이 당시 ‘判天台宗事 龍岩寺 住持’였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문헌적 가치가 높다. 또한 그 卷末에 ‘書寫者, 校整者, 化主, 刻手, 鑲板, 鐵匠’ 등이 모두 등장하고 있는 등 고려시대 목판인쇄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앞·뒤 표지가 탈락되었고 보존 상태가 불량하다(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25> 해제. 참고).

41) 圓妙了世(1163-1245): 圓妙國師 了世. 了世는 『法華經』과 天台思想에 입각하여 백련결사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의 白蓮結社 및 그 후예(後裔)들이 수행한 法華懺法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① ‘14. 『妙法蓮華經三昧懺法』’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法華懺法 의식은, 義天이 고려 천태종을 創始한 이래, 武臣政府가 들어선 이후인 13세기에 결성된 了世의 白蓮結社에서 특별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了世의 白蓮結社는 修懺(懺悔法)과 (彌陀)淨土를 강조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法華經』에 바탕을 둔 天台智顓(智者)의 『天台止觀』⁴²⁾과 『法華三昧懺儀』 및 知禮의 『觀無量壽經妙宗鈔』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了世의 백련결사 운동은 法華·淨土 思想에 입각한 念佛結社로써 이른바 ‘天台止觀,⁴³⁾ 法華三昧懺,⁴⁴⁾ 淨土求生⁴⁵⁾’의 三門을 열어 죄와 장애가 두터운 범부중생들을 거두고 있다.⁴⁶⁾ 이와 같은 白蓮社의 修行法⁴⁷⁾은 천태대사가 저술한 『法華三昧懺儀』를 그대로 채택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법화삼매 수

高麗後期佛教思想史에서 가장 큰 足跡을 남긴 위인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1174년 합천 天樂寺로 출가하여 均定에게서 天台教觀을 닦았다. 1185년 僧科에 합격. 보조지눌의 정혜결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 뒤 남원 歸正寺에서 天台의 『妙宗』을 강의하였으며, 1208년에 영암 약사난야에 거주하면서 천태종 중흥의 사명을 자각한다. 그리하여 요세는 ‘근기가 낮고 업장이 깊은 중생에게는 이론화된 天台禪의 一心三觀과 懺悔修行이 보다 유리하다’고 결단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강진 萬德寺를 중창하고, 1232년에 만덕사에서 보현도량(普賢道場)을 결성하고 법화삼매참회를 닦았다. 이와 같이 了世는 天台智顓가 시도한 보현도량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 ‘白蓮社’라는 결사명칭도 바로 이때인 1232년부터 사용되었다. 백련결사운동의 구체적 실천내용은 ‘天台止觀·法華三昧懺·淨土往生’이었다. 1236년에는, 뒷날 백련사의 第4世 祖師가 되는 天頤에게 <백련결사문>을 쓰게 하였고, 법화참회를 수행하게 된 사람이 수천 명이었다. 1237년에 高宗은 了世에게 禪師의 법계를 내렸고, 정화옹주는 백련사의 외호에 힘써 無量壽佛像을 봉안하고, 金字로 『법화경』을 쓰게 하였다. 1240년 『계환해 묘법연화경』을 개관하여 보급하였는데, 이 때 崔怡가 跋文을 썼다. 백련결사는 최씨 무신정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였다. 1245년 제자 天因에게 白蓮社를 맡기고, 7월에 입적하였다.

了世의 著述은 『三大部節要』가 있으나 전하지 않는다. 이 책은, 智者의 『摩訶止觀』(20권)과 『法華玄義』(20권) 및 『法華文句』(20권)의 3大部가 너무 방대하므로, 了世는 이 책들의 綱要만을 뽑아서 『三大部節要』라 이름하여 印出하였다는 기록만 보인다.

- 42) 『天台止觀』은 ‘摩訶止觀’ 10卷(또는 20卷)을 일컫는다. 隨나라 天台智顓(智者)의 저술. 594년에 荊州 玉泉寺에서 지의가 행한 강설을 제자인 灌頂이 기록한 것으로, 天台大師의 禪定 체험에 의거한 觀心修行法을 기록한 책. 天台宗에서는 『法華玄義』·『法華文句』와 더불어 법화3대부(法華三大部)라고 함. 그 내용은 四種三昧의 行法으로 一心三觀의 觀法을 이루는 것과, 一念三千의 법문을 설하여 開宗의 眞面目이 보임.
- 43) 여기서의 ‘天台止觀’은 天台宗의 修行法을 일컫는다. ‘止觀’은 禪定과 智慧를 균등하게 닦는 수행법으로, ‘止’는 ‘멈추어 모든 번뇌를 끊는 것’을 의미하고, ‘觀’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사물의 本性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44) 法華三昧는 ‘법화경’을 근거로 하는 三昧이다. 이러한 法華三昧에 의지하여 죄업을 참회하는 수행법의 하나가 바로 法華三昧懺이다.
- 45) ‘淨土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他力信仰의 대표적인 신앙행위라 볼 수 있다. 了世가 이것을 받아들여게 된 것은 四明知禮(960-1208)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知禮는 입으로 외우는 稱念念佛을 圓頓止觀의 경지로 끌어 올린 인물이다. 즉 “了世가 妙宗을 강의하다가, ‘이 마음이 부처가 되고(是心作佛)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다(是心是佛)’라고 한 대목에서 크게 웃었다”라고 그의 碑文에서 지적한 것이, 了世가 知禮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是心作佛 是心是佛’은 知禮의 『觀無量壽佛經妙宗鈔』의 4권에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이다(이병욱,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혜안, 2002), 82-83.).
- 46) 최영진 외, 『한국철학사』, (서울: 새문사, 2009), 103.
- 47) 了世는 69세 되던 해인 1232년(高宗 19) 4월 초과일에 보현도량(普賢道場)을 개설하여, 『천태삼매의』에 의하여 法華三昧를 修行하면서, 『법화경』 독송과 삼매·예불·참회·염불을 통하여 淨土往生을 求하는 실천적인 신앙 운동을 전개하였다. 보현도량을 개설했을 때에는, 제자가 38인, 보현도량에 入社한 자가 300여 명에 이르렀고,

행법이 了世 당시부터 크게 유행하였고, 이 유행이 麗末鮮初까지 盛行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책 '14.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上'의 腹藏 入藏은 '高麗後期の 天台宗' 및 '了世의 白蓮結社'와 매우 깊은 關聯性이 있음을 파악하게 하여 준다. 또한 이 책은 역대의 正藏目錄이나 의천의 『教藏總錄』에도 수록되지 않은, 이른바 稀貴書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게 평가된다.

② '25. 『法華三昧懺助宣講儀』 卷下'에 관하여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法華三昧懺』은 天台智顓가 저술한 『法華三昧懺儀』를 일컫는다. 『法華三昧懺助宣講儀』는 天台大師의 『법화삼매참의』를 해설하고 강의하며 3권으로 편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天台智者의 저술인 『法華三昧懺儀』도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편입되지 않았는데, 『法華三昧懺助宣講儀』는 그동안 학계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책 '25. 『法華三昧懺助宣講儀』 卷下'는 高麗末인 1377년(禍王 3: 宣光七年 丁巳)에 靈岳寺의 住持인 妙慧가 간행한 것이다. 즉 <사진 2>의 왼쪽 마지막 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 卷末의 간행사항에 '이 책은 妙慧가 그의 先父인 趙德裕의 往生淨域을 위하여 助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덕유는 趙仁規⁴⁸⁾의 孫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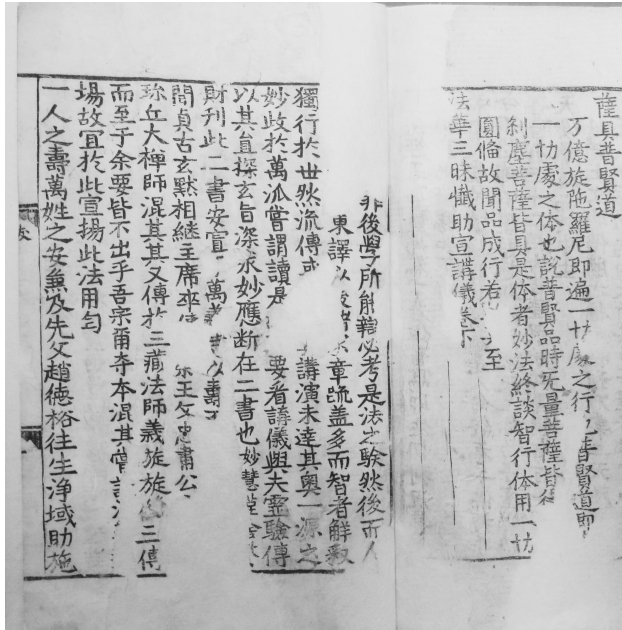
조인규는 고려의 元나라 간섭기⁴⁹⁾ 때에 통역관으로 크게 출세하였고, 權門勢家를 이룬 조인규의

수천 명의 민중들도 참여하여 열광적인 신앙운동의 熱氣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了世의 이 도량에서는 5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법화경』 1部를 讀誦하고, 『準提眞言(神呪)』 1千遍을 念하고, 『나무아미타불』을 1만 번 誦송하였다(崔滋, <了世碑銘>, “每禪觀誦授之餘 誦法華一部 念準提神呪一千遍 彌陀佛號一萬聲 以爲 日課”)”고 한다. 바로 이러한 도량은, 1236년에 <白蓮結社文>(제자 天頭 지음)을 공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白蓮結社가 선포되게 하였다. 了世의 불교사상은 13세기 전후의 혼란상에 처해 있었던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정도신앙이 민중 속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 『準提眞言』에서의 『準提』는 梵語로서 ‘淸淨’이라는 뜻이다. 『千手經』에서는 『準提觀音』을 말하는데, 6觀音 중의 한 분이고, 인간세계와 천상세계를 제도하는 관음(天人丈夫觀音)이다. 준제관음은 부처를 출생시키는 佛母로 신앙된다. 즉, 『准提佛母信仰』이다. 『천수경』에서 ‘준제진언의 공덕은 한이 없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온갖 환란이 침범하지 못하며, 天上이나 現세에서 부처님과 같은 복을 받으며, 이 準提呪를 만났으니,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성취한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다. 準提眞言(準提呪): “나무 사다남 삼막삼못다 구치남 다나타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하 부림(3회)’”. / 바로 이러한 了世의 白蓮結社는 ‘高麗後期 天台宗’의 中興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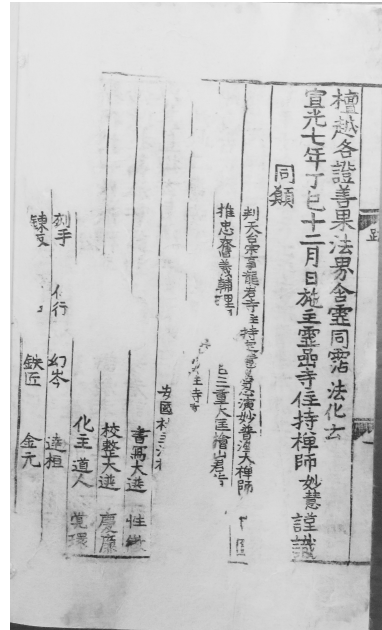
48) 趙仁規(1237-1308): 平壤府의 미미한 가문의 출신이었으나, 몽고어 통역관으로 출세하여, 忠宣王의 장인이 되었으며 權門勢家의 반열에 올랐다. 아들 4명이 모두 재상의 지위에 올라 가문을 번성하게 하였다.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기(1270~)에 들어가는 즈음, 조인규는 元宗 때에 통역관으로 선발되어, 1269년에 세자 王謙(뒤 충렬왕)이 元나라에 入朝할 때 수행하여 충렬왕과 친분 관계를 두터이 하였다. 충렬왕이 즉위한 후 조인규는 승지가 되었고, 탁월한 몽고어 구사력으로 元나라 世祖의 신임을 받으면서 원나라 관직에 오르기도 하였고, 몇 차례 원나라 使臣으로 다녀왔다. 1292년에 그의 딸이 세자비(충선왕비)로 간택되면서 國舅(국구)가 되었다.

49) 한편, 고려는 元宗 11년인 1270년에 開京 還都와 함께 元나라 간섭기에 접어들었고, 고려불교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게 된다. 즉 이 시기 禪僧들 사이에서는 강한 시대의식이 싹트면서, 忠烈王 시대에 禪宗을 주도했던 일연(普覺一然: 1206-1289)이 『三國遺事』를 찬술하고, 그의 말년에는 國尊으로 책봉되고 왕권과 밀착하면서 문신·무신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一然이 속한 가지산문이 불교계의 중심세력으로 부각되어 교권을 장악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王室은 천태종·자운종과 같은 교학의 흥행에 기울어지고 있었다. 忠烈王과 제국대장공주의 願刹로 창건된 妙蓮寺(1284년(忠烈王 10) 완공)는 天台思想의 宣揚을 위한 것이었다. 이 妙蓮寺에 白蓮社 계통의 圓慧·無畏 등이 진출하여 교세확장을 꾀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 다시 권문세족인 趙仁規 집안의 천태종 승려들이 결합함으로써 현저하게 附元勢力的인 귀족불교로 변질하고 있다(최영진 외, 『한국철학사』 (서울: 새문사, 2009), 104-105.). 그리하여 천태종 妙慧(조인규의 曾孫)가 『法華三昧懺助宣講儀』를 1377년(宣光七年 丁巳)에 간행

家門에서 4명의 天台宗 僧侶를 배출하였다. 즉 ‘混其·義旋(조인규의 4子)·普解(趙의 孫)·妙慧(趙의 曾孫: 『法華靈驗傳』 跋文의 撰者)’의 4명이 바로 그들이다.⁵⁰⁾



<사진 2> 「법화삼매참조선강의」 권하, 卷末題 이후의 간행사항



<사진 3> 「법화삼매참조선강의」 권하, 卷末題 이후의 刊記 사항

특히, <사진 3>의 右側 第2行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法華三昧懺助宣講儀』의 卷末에 “宣光七年丁巳(1377)十二月日 施主靈岳寺住持禪師妙慧謹識”⁵¹⁾이라는 刊記 사항이 기록되면서, 界線이 없는 상황에서 그 行에 “同類”라 記錄하고, 그 다음 行에 “判天台宗事 龍岩寺 住持 定慧慈忍演妙普溘大禪師 [了圓]”⁵²⁾이라고 기록한 사항이 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妙慧가 이 책을 간행할 당시(1377)에, 『法華靈驗傳』⁵³⁾의 저자로 有名한 天台宗의 了圓이 ‘判天台宗事 龍岩寺 住持’의 자격으로 이 책

하고, 이 책의 간행에 동참(同類)하였던 천태종 了圓이 『法華靈驗傳』을 저술했을 때 妙慧가 그 刊行經費 一切를 책임지는 등, 이러한 분위기는 고려 후기 당시 他力信仰이 크게 유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볼 수 있다.
50) 蔡尙植, ‘妙蓮寺의 창건과 그 성격’, “14세기 전반기 佛敎界의 경향,” 『高麗後期佛敎史 研究』 (서울: 일조각, 1991), 193-195. 參考.

한편, 韓國佛敎思想史에서는 위 조인규 가문 출신의 승려들을 이른바 ‘妙蓮寺 계통’으로 구분하여, 了世의 白蓮結社와 분리하여 논술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결국 白蓮結社를 수행하였던 고려 천태종의 소속이었으므로, 本考에서는 굳이 이들을 천태종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51) <사진 3>의 원문이미지 오른쪽부터 第2行의 刊記 사항.

52) <사진 3>의 원문이미지 오른쪽부터의 第4行 下部에 보이는 [了圓]에서, ‘了’자는 그 글자의 劃의 일부가 탈락되기는 하였지만, ‘了圓’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위의 본문에 記入하였음.

53) 『法華靈驗傳』: 고려말의 승려 了圓이 편찬한 上·下 2권으로, 『법화경』을 암송·筆寫하고 講說함으로써 갖가지

『法華三昧懺助宣講儀』의 간행에 同參(同類)하였음을 확인하게 하는 기록이 明記되어 있기 때문이다.⁵⁴⁾

한편, 妙慧는 忠惠王(1339-1344) 때 수원에 있는 법화도량(法華道場)인 萬義寺의 住持로 있을 때, 了圓이 편찬한 『法華靈驗傳』을 간행할 때,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⁵⁵⁾ 『법화영험전』의 간행은 당시 고려 사회의 일반 민중들이 『법화경』을 신봉하는 한편, 법화예찬의 실천과 아미타불·관세음보살 칭명을 통한 신앙생활 및 法華思想의 토착화에 대한 상황을 端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25. 『法華三昧懺助宣講儀』’는, ‘고려 天台宗의 大禪師 了圓이 本書를 간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였다’는 기록이 明記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문헌적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高麗 天台宗의 활약은 高麗末까지 지속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端初를 제공해 주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5. 『法華三昧懺助宣講儀』 卷下’의 卷末 간행사항에서는, 이 책의 ‘書寫者, 校整者, 化主, 刻手, 鍊板, 鐵匠 등등’이 모두 등장하고 있는 등 고려시대 목판인쇄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⁵⁶⁾

요컨대, <표 2>의 ‘14. 『法華經三昧懺法』’과 ‘25. 『法華三昧懺助宣講儀』 卷下’는 高麗後期 天台宗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典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典籍의 간행은 ‘高麗末에 法華三昧의 수행법 및 法華信仰이 대단히 활발하였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法華三昧懺法』類의 典籍들이 기림사 비로자나불상에 腹藏되었다는 것은, 곧 당시(1377) 祇林寺에는 高麗後期 天台宗의 승려들이 이 寺刹을 守護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표 2>의 ‘27. 『禪門拈頌集』 12卷 9冊’은, 고려의 眞覺國師 無衣子 慧謙(1178-1234)⁵⁷⁾이 1226년에 조계산 修禪寺에서 편찬한 30卷本 중에서 12권만 入藏된 것이라 볼 수 있다. 慧謙은

靈驗들의 實例를 중국과 한국 그리고 여러 경전과 論書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책이다. 총 ‘107개’의 영험설화를 담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의 영험설화도 ‘19편’이나 수록되어 있다. 이들 영험은 神異(‘법화경의 제목을 외울 때 지옥이 없어지다’, ‘법화경의 筆寫를 위해 종이를 살 때 이미 천당에 태어나다’, ‘낮처럼 밝은 밤’, ‘평이 사람이 되다’, ‘귀신이 머리를 조아리다’, ‘도적이 헤치지 못하다’ 등등), 極樂往生(‘죽은 부인이 천상세계에 태어나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고통을 면하다’ 등), 離苦得樂, 得男, 治病(‘병에 따라 약을 주시다’, ‘부스럼 병이 낫다’, ‘장님이 앞을 보다’ 등) 등등의 영험들이 수록되어 있다. 고려 중기 이후 원나라의 거듭된 침략과 武臣政治 및 고려 후기 倭賊의 전국적인 노략질 등등 혼란한 고려사회에서, 13세기 이후 ‘고려 天台宗’의 圓妙國師 了世가 개창한 ‘白蓮社의 信仰結社(白蓮結社)’ 운동이 왕성(旺盛)하였고, 또한 法華信仰의 강력함을 일깨우는 위와 같은 ‘법화영험전’의 영향은, 고려말 민중들에게 法華信仰이 ‘요원의 불길(燎原之火)’처럼 확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4) <사진 2> 및 <사진 3>은, 2017.10.26. 에 필자가 기림사를 방문하여, 유물자료조사 이후에, 카메라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촬영한 것임.

55) ‘法華思想’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56)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25> 해제. 참고. 발견 당시에는 앞·뒤의 표지가 탈락되었고 보존 상태가 불량하다. 현재는 五針眼訂本으로 改裝되어 있다.

57) 慧謙: 諡號 眞覺國師. 號는 無衣子. 普照國師 知訥에게 出家. 보조국사가 입적한 후, 王命에 의해 修禪寺에 들어가, 보조국사의 자리를 맡아 曹溪宗의 第2世가 됨. 『선문염송집』을 편찬하여 고려의 선불교 中興을 결정적으로 이끌었던 ‘한국의 偉人’ 중의 한 사람.

보조국사 知訥의 法統을 이어 받아 修禪寺의 2세가 되었던 걸출한 禪僧이다. 이 책 '27. 『禪門拈頌集』'은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편찬된 이른바 '禪家の傳燈'이며, 한국불교 禪門의 寶庫라 할 수 있다.⁵⁸⁾ 왜냐하면, 현재 한국불교 曹溪宗에서 重視하고 있는 看話禪은 眞覺慧謚에 의하여 禪宗의 확고한 수행법으로 뿌리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⁵⁹⁾ 아마도 이 책은 고려 高宗 시대에 판각된 목판에서, 그 뒤의 어느 시기(後期)에 별도로 印出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12卷 9冊' 중에서 현존 첫 권인 '『禪門拈頌集』 卷第五'의 卷首題 面에는 "上院寺留鎮"⁶⁰⁾이라는 筆寫 墨書가 기록되어 있음도 주목된다.⁶¹⁾ 그렇다면 이 책을 본 腹藏에 入藏시킨 主體는, 上院寺와 祇林寺 등에서 가람을 수호하던 고려 후기 천태종의 후예들 즉, 白蓮結社를 계승하는 승려집단이었을 蓋然性이 크다고 볼 수 있다.⁶²⁾

白蓮結社와 관련하여, 현재 남아 있는 記錄 등으로 14세기 당시를 살펴보면, 오대산(上院寺)·금강산 등을 周遊한 인물로서는 雲默無奇를 唯一하게 지목할 수 있다. 즉 운목무기는 白蓮社의 제5세인 佛印靜照의 제자가 되어 僧科에 합격하지만, 굴암사 주지직을 버리고, 금강산·오대산 등 명산을 돌아다니다가, 시흥산에 자리를 잡고 오직 『法華經』을 誦하고, 阿彌陀佛을 念하였다. 1328년에는 『釋迦如來行蹟誦』을 저술하였고, 그밖의 저술로 『警策』이 남아 있다.⁶³⁾ 이와 같은 雲默無奇의 사상에서 會通情神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義天과 了世의 天台思想을 결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의천은 원효의 사상을 계승하였는데, 운목무기는 이것을 了世가 주장한 수행방법으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운목무기에 이르러 한국의 천태사상은 그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다.⁶⁴⁾

위와 같이, 고려에서 편찬되고 간행된 禪門의 寶庫인 『禪門拈頌集』이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本으로 入藏된 것은, 12세기 중기 이후 지눌의 法統인 修禪社 계통 禪宗의 圖書들도 高麗後期の 天台宗의 修行과 理念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상황을 파악하게 하여 주는, 대단히 중요한 史料적인

58) 禪家の 古話(話頭) 1125칙(則)과 많은 禪師들의 拈頌 등 禪門의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사항들을 묶은 것으로, 不立文字를 표방하는 禪門이지만 그 근원을 얻으려면 그 흐름을 찾지 않을 수 없으므로, 禪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燈臺의 역할을 담당하는 寶庫라 할 것이다.

59) 최영진 외, 『한국철학사』 (서울: 새문사, 2009), 103. 參考.

60) 이로 보아 강원도 上院寺의 佛典이, 그 어떠한 시기에 경상도 기림사로 옮겨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기림사 本尊佛인 비로자나불상의 腹藏으로 入藏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여 준다.

61)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27>의 원문이미지 參照.

62) 왜냐하면, 고려 천태종에서는 天台禪을 重視하였기 때문에, 『禪門拈頌』도 禪修行을 위한 길라잡이로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63) 雲默無奇가 『석가여래행적송』을 저술한 목적은, 석가모니의 행적보다는 末法時代 佛子들의 자각과 사명감을 촉구하는데 있다. 그리고 당시 귀족불교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는 『경책』에서 네 가지 은혜, 곧 '임금의 은혜·스승의 은혜·부모의 은혜·시주의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주의 은혜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묘연사 계통의 義旋[趙仁規의 出家한 아들: 1314년 병에 걸려 기도로 치유하였으며, 1330년대까지 원나라를 왕래하면서 불은사를 중창. 1332년에는 光敎寺를 주창. 1336년에 원나라에서 돌아와 충숙왕에게 妙蓮寺의 重修를 권하여 도량(道場)을 일신시켰다. 그는 원나라의 왕실과 본국의 왕실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당대의 고승이면서도 검소하고 평범하게 살았고, 글씨에도 능하였다]의 견해와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다(이병욱,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혜안, 2002), 105-106.).

64) 이병욱, "운목의 석가여래행적송에 나타난 회통사상," 『불교학연구』 창간호(2000), 161-187. 참고.

가치를 지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5) <표 2>의 '23. 『法苑珠林』 卷22'는, 唐 시대 道世가 '100권 100편 668부'로 나누어 세분하여 찬술한 일종의 불교 백과사전 중의 한 권이라 할 수 있다. 즉, 100권의 방대한 분량 가운데서 '제22권'만 납입된 것이다.⁶⁵⁾ 아마도 이 책은 고려 中期 때인 大藏都監에서 판각한 판본에 의하여, 고려 後期에 간행(印出)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표 2>의 '21. 『예수시왕생칠경(佛說豫修十王生七經)』'⁶⁶⁾과 '22.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率蓋摠持』'⁶⁷⁾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1. 『예수시왕생칠경』'은 生前 豫修齋의 대표적인 儀式集이라 할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豫修齋는 死後에 행할 佛事를 生前에 행하는 것으로, 先亡 부모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刊行하거나 腹藏하는 『父母恩重經』과 함께, 餘他の 佛腹藏에 많이 入藏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② '22.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率蓋摠持』'⁶⁸⁾는 『대불정여래방광실달다발달라다라니(大佛頂如來放光悉怛多鉢怛羅陀羅尼)』(『大佛頂經』)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大佛頂經』은 『首楞嚴經』의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이 책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率蓋摠持』는 『首楞嚴經』의 '다라니'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禪院에서 아침 일찍 일과로 독송하는 大佛頂楞嚴神呪⁶⁹⁾를 의미하거나 또는 이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의 卷末에 있는 공문의 제문에 의하면, 인도 출신 指空和尚⁷⁰⁾의 도움으로 正本을 편찬하여, 1330년(天曆3年 庚午: 忠肅王 17)에 天磨山 寶城寺에서 간행한 것을, 새롭게 1375년(洪武8年 乙卯: 禡王 元年)에 지리산 無爲菴에서 重刊한 판본이다.⁷¹⁾ 즉, 이 책은 1330년에 高麗에서 獨自的으로 편찬된 귀중한 楞嚴神呪 관련 佛典이라고 분석된다.

이상과 같이, <표 2>에 제시된 기림사 비로자나불 복장 중 '고려 목판본 27種'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이들 典籍에서 佛腹藏에 일반적으로 入藏되는 『은증경』과 『장수경』 등을 제외하면, 이 복장에는 ① 『화엄경』을 비롯한 그 章疏 및 圓覺略疏 등 '華嚴類 10種', ② 『법화경』과 그 懺法

65) 본 腹藏에 '법원주림' 100권 중에 단지 '第22卷'만 入藏된 것은 이채롭다. 아마도 단 한 권만 입장시킨 것은 『법원주림』에 대한 상징성 때문이거나, 아니면 腹藏의 공간이 협소하여 상징적으로 단 한 권만 입장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6) 『예수시왕생칠경』: 唐나라 藏川이 지은 것으로, 『閻魔王授記四衆逆修生七往生淨土經』의 略稱. 閻라왕의 授記成佛과 十王七齋豫修의 공덕 등을 설한 경이다. 1卷本임. 生前에 지내는 豫修齋를 행하는 의식집이다.

67) 이 책은 1330년(忠肅王 17)에 天磨山 寶城寺에서 간행한 것을, 1375년(禡王 元年)에 지리산 無爲菴에서 重刊한 것이다.

68) '白率蓋'는 梵語 '실달다발달라(悉怛多鉢怛羅)'를 번역한 것이며, '佛頂尊의 다라니'를 말한다. '總持'는 '다라니(陀羅尼)'를 音譯한 것이다.

69) 『楞嚴經』 가운데 '불설 대다라니'를 의미함.

70) 指空和尚(?-1363): 印度 마갈타국 滿王의 제3왕자로, 8세에 나란타寺에 出家함. 중국을 거쳐 1328년에 高麗에 와서 金剛山 법기도량(法起道場)에 예배하였고, 7월에 延福亭에서 계를 설하고, 1363년 貴化方丈에서 入寂하였다. 1372년에 양주 회암사에 부도를 세우다. 指空은 『직지』의 저자인 白雲景閑이 지극히 尊崇하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指空은 나옹화상에게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71)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2-22> 해제. 참고.

등 '法華類 6種', ③ 「능엄경」과 그 다라니 및 「禪門拈頌集」 등 '禪宗類 3種' 등에 集中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高麗佛敎思想史에서 華嚴과 法華 및 禪宗을 아우르는 人物은 고려의 禪宗을 開創한 大覺國師 義天이 唯一하고, 高麗後期 天台宗의 白蓮結社 및 「法華三昧懺」 등의 활발할 도서간행 상황들도 파악하였다.⁷²⁾ 따라서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 전적 중 고려 목판본의 성격(正體性)은 의천의 후예들인 '고려 天台宗'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 中 朝鮮前期 목판인쇄본의 분석

본 章에서는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腹藏 중에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선시대 前期 목판본16種'이 入藏된 것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표 3>에서 우선 刊行時期別로 보면, '① 太宗 시대(1401)의 '3. 「首楞嚴經」 卷2·卷3·卷4' 1種. ② 世宗年間(1418-1450)에는 '2. 「父母恩重經」, '6. 「法華經」 卷4~7, '7. 「法華經」 卷 3~4', '11. 「牧牛子修心訣」, '12. 「長壽經 合綴 恩重經」의 5種. ③ 世祖年間(1455-1468)에는 '1. 「蓮華經」 卷7' 등의 7種.⁷³⁾ ④ 成宗 시대(1474)에 1種, ⑤ 燕山君 시대(1500)에 1種, ⑥ 中宗 시대(1527)에 1種' 으로 모두 '16種'의 佛典들이 入藏됨으로써, 世宗·世祖 年間に 간행된 것이 集中的으로 '12種'이나 입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世宗·世祖 시대의 資料가 75%에 이를 정도로 佛典의 간행이 가장 빈번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표 3>의 資料들을 그 裝幀形態別로 구분하여 보면, ① 折帖裝으로는 世宗 때(1431)의 '2. 「父母恩重經」'과 世祖年間(1455-1468)의 '1. 「法華經」'이 확인된다.⁷⁴⁾ ② 包背裝으로는 太宗 때(1401)의 '3. 「首楞嚴經」'⁷⁵⁾과 世祖年間の '4. 「法華經」 권5'⁷⁶⁾으로 나타난다. ③ 나머지 12종의 佛典들은 모두 線裝으로 裝幀되어 있다. 즉 世宗 이후 線裝本이 차츰 그 大勢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2) 白蓮結社는 趙仁規 家門의 妙蓮寺 계통이 결합되면서 민중불교가 귀족불교로 변질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禪宗의 수행방법을 위한 「法華經三昧懺法」과 「法華三昧懺助宣講儀」 등을 비롯하여 「禪門拈頌集」과 「首楞嚴經神呪」(1375) 등도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腹藏에 入藏된 것을 보면, 高麗後期 天台宗의 凡宗派의 人 활동은 再考察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73) <표 3>의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世祖 시대에는 1459년(世祖 5)에 造成된 「地藏菩薩本願經」이 白紙墨書寫經이 入藏되어 있음이 異彩롭다.

74) 특히, '2. 「부모은중경」' 절첩본은 그 인쇄 및 보존 상태가 매우 깨끗하여, 印出하고 바로 腹藏으로 납입된 듯하다. '1. 「법화경」 권7'은 折帖用 板式을 지닌 책으로, 그 板刻은 매우 정성들여 새겼음을 알 수 있다(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4-1>, <보물 제959-4-1> 해제. 참고.).

75) '3. 「首楞嚴經」'은 紺色의 表紙에, 長方形의 金泥·銀泥 제침 속에 '大佛頂首楞嚴經'의 經名을 金泥로 써 넣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76) '4. 「법화경」 권5'는 '成達生이 쓴 「법화경」'의 번각본으로 추정되며, 世祖年間に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4-4> 해제. 참고.).

셋째, <표 3>의 자료들을 그 書名別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 3>의 16種의 佛典 중에서 「법화경」이 무려 ‘7種’을 차지하여 43.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법화경」은 ‘世宗年間에 2種’ 그리고 ‘世祖年間の 것이 4種’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주목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인하여 불교의 모든 思想이 침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 信仰의인 측면에서는, 高麗末에 旺盛하게 盛行하였던 法華信仰이 조선 前期 시대에도 계승되어 지속적으로 유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조선 왕조 全時代에 걸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간행된 「法華經」들이 收畧·保存되어, 기림사의 佛腹藏에서도 대표적으로 入藏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⁷⁷⁾ 특히 世祖의 경우에는 <刊經都監>에 명하여, 「능엄경」 다음으로 「법화경」의 諺解本을 출간하게 한 것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⁷⁸⁾

2) <표 3>의 ‘2. 「父母恩重經」’(1431: 世宗13)⁷⁹⁾과 ‘12. 「長壽經 [合綴] 恩重經」’(1443: 世宗25) 및 ‘5. 「恩重經 [合刻] 長壽經」’(1431: 世祖8)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 「부모은중경」’(1431: 世宗13)은, 折帖裝의 卷首 본문이 전개된 다음 ‘제1의 변상도’가 배치되면서, 부모의 은혜가 막중함을 說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기록유산의 원문이미지로 보아도, 그 보존상태가 너무나 양호하다. 따라서 이 책은 그 인출 후 바로 腹藏本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인다. 卷末의 간행사항으로 記載된 化主人 ‘信心’은 1436년에 간행한 「法華經」의 化主와 동일인물로 보아, ‘辛亥五月’의 年度를 ‘1431년’으로 추정하고 있다.⁸⁰⁾

② ‘12. 「長壽經 [合綴] 恩重經」’(1443: 世宗25)은 「長壽經」과 「恩重經」이 合綴된 형식의 책이다. 먼저, 「장수경」의 시작 부분에는 ‘卷頭 變相圖’가 먼저 인쇄되어 있고 연이어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라는 「장수경」의 卷首題가 제시되고, 그리고 ‘佛陀波利’의 번역자사항이 나온 다음, 불경의 본문이 시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⁸¹⁾ 두 번째로 「부모은중경」이 「장수경」에 합철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책은 1432년(世宗 14)에 太宗의 후궁 명빈김씨가 주관하여 간행한 책⁸²⁾의 후쇄본이다.

③ ‘5. 「恩重經 [合刻] 長壽經」’(1462: 世祖8) 중에서 「부모은중경」은 원래 1432년(世宗 14)에 太宗의 후궁인 명빈김씨가 주관하여 간행한 판본인데,⁸³⁾ 이 책은 그 이후인 1462년(靑龍壬子)에 다시 찍은 후쇄본으로 보인다. 즉, 이 책의 卷末에 墨書로 書寫한 기록에 의하면, 내명부 종오품

77) 즉, 조선 초기의 국왕이나 백성들은, 「법화경」의 간행 및 유통으로 죽은 이의 명복을 빌거나, 살아 生前에 「법화영험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여러 功德의 發現을 굳게 믿었다고 볼 수 있다.

78) 「법화경」은 조선시대 全時代를 통틀어 그 간행기록이 명확한 것만도 무려 ‘117種 이상’이나 印出되었을 정도로, 가장 활발한 경향을 보였다.

79) 이 판본은 戊午年(1378?)에 판각된 「은중경」의 변각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4-2> 해제. 참고.)

80)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4-2> 원문이미지 및 해제. 참고.

81)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4-12> 원문이미지 및 해제. 참고.

82) 1433년(世宗 15)에 花岩寺에서 간행되었다.

83) 「父母恩重經」의 跋文 사항.

벼슬의 '昭訓尹氏 克溫이 1462년(天順 6)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천도를 위하여 『법화경』과 『은중경』 및 『장수경』 각 1권을 인쇄하고 裝潢 공양하여 보시하였다'는 사항에서 그 간행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소훈윤씨가 간행한 책 중에서 『은중경』과 『장수경』을 합철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왕실에서 간행된 책으로 그 板刻이 정교하고 裝幀에도 정성을 기울였으며, 紺色の 明紬 표지에, 황색 바탕의 제침에 金泥로 '父母恩重經長壽滅罪經合部'가 書寫되어 있다. 권자본 판식에서 16행씩 인쇄하여 線裝으로 裝幀한 것이다.⁸⁴⁾

『부모은중경』은, 유교적 관점에서 孝를 강조하는 조선시대에서, 불교 경전 중에서도 부모의 은혜에 대한 孝思想의 대표적인 경전으로써 조선시대에 수십 종의 판종이 간행되었던 佛典이다. 특히, 『은중경』이 『장수경』과 합철되어 先亡父母의 명복 및 극락왕생의 薦度を 위한 '冥福經'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위와 같이 腹藏經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주목할 수 있다.

3) <표 3>의 '3. 『首楞嚴經』'(1401) · '11. 『牧牛子修心訣』'(1441) · '13. 『禪門三家拈頌集』'(1464) · '16. 『禪宗唯心訣 [合綴] 涵虛堂得通和尚行狀, 永嘉集十章讚頌并序, 五代真言』'(1500)을 '禪宗關聯圖書'라는 하나의 單位로 묶어서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 '3. 『首楞嚴經』'은 1401년(太宗 1)에 太祖 이성계가 太上王으로 있으면서, 神聰에게 그 底本の 글씨를 쓰게 하고 명호 등이 刻手로 참여하여 大字로 새긴 『능엄경』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의 왕실에서 獨自의으로 간행한 經典이라는 점에서 그 意義가 있다. 이 책의 표지는 紺色이고, 金·銀泥 長方形의 제침 속에 '大佛頂首楞嚴經 卷第二' 등으로 經名과 '卷第三'·'卷第四'의 각 권차까지 金泥로 寫成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인 包背裝本이다.⁸⁵⁾

『首楞嚴經』은 禪宗의 思想과 密敎思想을 가장 잘 代辯하여 주는 대승경전이라 하겠다. <표 2>의 '2. 『首楞嚴經』'의 入藏 사례를 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佛腹藏에서도 必需經典으로 選定된 이 經典은 禪宗에서 추구하는 '깨달음(覺: 道; 眞如)의 本性' · '觀音修行門' · '解脫의 門으로 들어가는楞嚴陀羅尼' 등을 설하고 있다. 이른바 '禪宗의 核心經典'이라 할 수 있다.

기림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佛腹藏은 조선시대에 늦어도 16세기 中期에 그 마지막 腹藏 의식이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는 바,⁸⁶⁾ 이 당시 기림사는 禪宗 계통의 승려들이 가람을 守護하였기 때문에 바로 위와 같은 『수능엄경』을 腹藏經으로 특별하게 선정한 책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② '11. 『牧牛子修心訣』'(1441: 世宗 23)은 고려 普照國師 知訥(1128-1210)⁸⁷⁾이 찬술한 것으로,

84)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4-5> 원문이미지 및 해제. 참고.

85)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4-3> 원문이미지 및 해제. 참고.

86) 脚註 11)의 註文 參照 要.

87) 知訥은, 한국불교 禪宗의 泰斗로, 이 책 『修心訣』을 비롯하여 『眞心直說』·『誠初心學人文』·『圓頓成佛論』·『법집별행록병입사기』·『看話決疑論』·『권수정혜결사문』·『念佛要門』·『上堂錄』·『法語歌頌』 등 수많은 禪佛敎의 名著述을 남김으로써, 한국의 禪宗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하겠다.

그 書名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마음을 닦은 비결을 제시한 禪의 理論書이면서 동시에 禪修行의 必讀書로, 한국의 대표적인 禪書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1441년(세종 23)에 윤필암에서 간행된 것이며,⁸⁸⁾ 책의 인쇄상태가 매우 깨끗한 특징을 지닌다. 책 卷首의 卷頭題 오른쪽 여백에 墨書로 ‘佛上腹藏 釋獻’이라고 書寫하고 있음을 보면, 이 책은 腹藏本으로 入藏시키기 위하여 그 初刷本을 특별하게 마련된 책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皖山法語> · <行脚法語> · <蒙山示衆> · <古潭法語>’의 4法語가 합철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⁸⁹⁾

③ ‘13. 『禪門三家拈頌集』 卷1~卷6(6권 3책)’은 고려 慧謙(1178-1234)이 찬술한 『禪門拈頌集』 30卷 중에서, 龜岩老禪이 12세기 중국에서 활약했던 ‘雪竇 · 圓悟 · 天童’의 3家만을 발취하여 6卷으로 편집한 책이다. 그 後序에 의하면, ‘1246년(高宗 33)에 崔怡의 壽福을 빌기 위해 刊行하다’는 기록이 있다. 즉 이 책 『禪門三家拈頌集』은, 高麗本을 조선시대에 重修하여 1464년(世祖 1)에 刊經都監에서 重刊한 것으로, 희귀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④ ‘16. 『禪宗唯心訣 [合綴] 涵虛堂得通和尚行狀, 永嘉集十章讚頌并序, 五大眞言』 등’(1500: 燕山君 6)은, ㉠ 합천 伽倻山 鳳栖寺에서 1500년에 판각한 『禪宗唯心訣』,⁹⁰⁾ ㉡ 刊年未詳의 『涵虛堂得通和尚行狀』,⁹¹⁾ ㉢ <永嘉集十章讚頌并序>를 비롯한 <大乘起信論釋題并書> · <法王歌> · <般若歌> · <宗風歌> · <策修吟> · <爲琮山和尚獻香獻茶垂語> · <安鍾垂語> · <送魏下語> · <起龜下語> · <葬畢後下語> · <下火> · <散骨下語> · <爲傑大靈駕撒骨下語> 등, ㉣ 1484년(成宗 15)에 판각한 『五大眞言』⁹²⁾ 등 4種이 하나로 合綴된 것이다.

이 책의 印出時期는 16세기 초(1500)로 보인다. 그 중 『五大眞言』은 중간에 반 이상의 분량이 빠져 있으나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年代가 앞서며, 이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永嘉集十章讚頌并序> 등은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이다.⁹³⁾

3) <표 3>의 ‘15. 『大藏一覽集』’(世祖年間)은 宋나라 陳實이 나름대로 『大藏經』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뽑아서 엮은 총 10권의 책이다. <표 3>에 보는 바와 같이, 본 腹藏에서는 다만 ‘第10卷’만 殘卷으로 入藏되고 있다. 이 책을 찍은 木板은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그 板式은

88) 그 後에, 『牧牛子修心訣』의 諺解本은 1467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된다. <보물 제770호>로 지정되어 있는 규장각(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본도, 위 1441년 刊本 『목우지수심결』과 꼭 같은 편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89)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4-11> 원문이미지 및 해제. 참고.

90)北宋 시대의 승려 延壽가 지은 것으로, 마음의 산물인 현상에 대하여 논설한 것이다.

이 책의 卷末에 ‘弘治十三年庚申(1500)仲冬有日 / 留板于慶尙道陝川土伽倻山鳳栖寺’의 기록이 있다(천혜봉, 박상국, 『祇林寺毗盧遮那佛腹藏典籍調查報告書』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8.8), 104.).

91) 이 책의 卷首題 다음 行에 ‘門人 栳夫 錄’이라 하였다. 득통의 제자 ‘야부’의 저작으로 보인다. 이 책의 版心題는 ‘通行狀’이라 표기하고 있다. 즉, 略書名.

92) 이 책의 卷末에, ‘成化二十年甲辰(1484)季春公山圓通菴開刊’이라는 기록이 있다(천혜봉, 박상국, 『祇林寺毗盧遮那佛腹藏典籍調查報告書』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8.8), 104.).

93)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4-16> 원문이미지 및 해제. 참고.

宋本の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좁은 版心에 黑魚尾가 가늘게 이중으로 처리된 것으로, 12세기의 『楞嚴經』이나 『禪門拈頌』에서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書體에 있어서도 宋本과 13세기 중반에 유행하는 高麗本들에서 같은 형식을 볼 수 있다.⁹⁴⁾

4) <표 3>의 '14. 『觀世音菩薩禮文 [合綴] 佛說阿彌陀經』'(1465: 世祖 11)은 아래와 같다.

먼저 『觀世音菩薩禮文』⁹⁵⁾은 觀世音菩薩에 대한 禮敬 및 懺悔儀式에 관한 책이다. 『佛說阿彌陀經』⁹⁶⁾은 '阿彌陀佛과 極樂淨土의 장엄함을 설명하고, 阿彌陀佛을 一心으로 念誦하면 극락에 왕생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다. 조선시대에 이들 두 경전은 『六經合部』에 편입되어 크게 유행하였다. 그런데 <표 3>에서, 『관세음보살예문』과 『불설아미타경』만 合綴되어 독립된 하나의 도서 형태로 腹藏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책은 '信者들의 禮敬 및 극락왕생을 위한 祈禱用 도서' 또는 '死者에 대한 薦度儀式을 위한 冥福經의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의 '14. 『觀世音菩薩禮文 [合綴] 佛說阿彌陀經』'은 1465년(世祖 11: 成化元年乙酉四月初八日) 圓覺寺에서 간행된 책이다. 이 때 進勇副尉 金自晶의 妻인 朴氏가 筆寫(寫經)하였고, 江寧君 洪元用 등이 크게(大) 施主하여 이루어진 冊이다.⁹⁷⁾

이상과 같이,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 중 <표 3>에 제시된 '16種의 조선시대 木板本'본의 入藏 상황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 복장에는 ① 『법화경』을 비롯한 『觀世音禮文』 등 法華類가 '8種'에 이르고 있어서 그 腹藏의 折半(50%)을 점유하고 있다. ② 『首楞嚴經』을 비롯한 『牧牛子修心訣』 등 禪宗類의 도서가 '4種'을 차지함으로써 그 腹藏의 25%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의 조선시대 佛典에는, 고려시대의 경우처럼 『화엄경』이 입장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腹藏典籍에는 오직 '法華類'와 '禪宗類'에 局限되고 있는 特異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의 腹藏本들에서 法華類와 禪宗類에 集中되는 경향은 아마도 '고려 天台宗의 후예들이 朝鮮 禪宗의 法脈을 이어 받으면서 祇林寺를 수호하고 있었던 점에서 起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蓋然性을 지울 수 없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⁹⁸⁾ 따라서,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 전적 중 <표 3>에 나타나는 조선 前期 목판본의 성격(正體性)을 분석한 결과, 조선 前期의 기림사는 '고려 天台宗'을 이어받은 조선의 禪宗 僧侶들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94)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4-15> 원문이미지 및 해제. 참고.

95) 『觀世音菩薩禮文』: 西域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 漢譯本.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六經合部』의 한 經으로 포함되어 유포되었다. 즉, 조선시대에 『육경합부』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은 成達生(1376-1444)으로, 그가 평양부윤으로 재직하던 1424년 무렵에 筆書한 것이 유명하다. 이러한 성달생 筆寫本이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처음으로 간행(1424)되었다. 그 후 성달생 筆寫·底本の 翻刻本 등이 유행하는 등, 현재까지 알려진 『육경합부』 판본은 20여 종에 이른다.

96) 『불설아미타경』은 『無量壽經』·『觀無量壽經』과 함께 『淨土三部經』 구성의 하나이다.

97)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4-14> 원문이미지, 원문텍스트 및 해제. 참고.

98) 이에 대한 심층연구는 불교학계의 몫이라 보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연구자들의 진일보한 연구를 기대한다.

5. 결 론

이상 본문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佛腹藏은 『造像經』에 의하여 엄밀한 격식을 갖추어 一定하고도 秘密스럽게 진행된다. 그러나 腹藏 중 法舍利로 入藏되는 佛典들은 해당 伽藍을 守護하는 승려들의 選好도와 宗派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佛腹藏은 해당 사찰과 관련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역사 및 그 正體性을 규명할 수 있는 端緒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 典籍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特性을 導出함으로써 기림사의 역사적 正體性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제2장에서는 기림사 비로자나불 복장 典籍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典籍은 ① 책 裝幀의 형태가 ‘折帖裝·胡蝶裝·包背裝·線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② 14세기의 高麗寫經群 10種, ③ 12세기부터 고려말까지의 목판인쇄 佛典群 27種, ④ 朝鮮前期부터 16세기말까지의 목판인쇄 佛典群 16種 등 ‘54種 71冊’의 典籍 등 무려 5세기 이상의 包括적인 佛典들을 포함하면서도 특정 宗派의 성격이 추정 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獨特한 腹藏典籍의 事例를 확인하였다.

셋째, 제3장에서는 기림사 毗盧遮那佛 腹藏 중 ‘고려 목판본 27種’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腹藏典籍 중에서 佛腹藏에 일반적으로 入藏되는 『은중경』과 『장수경』 등을 제외하면, ① 『화엄경』을 비롯한 그 章疏 및 圓覺略疏 등의 이른바 ‘華嚴類 10種’, ② 『법화경』과 그 懺法 등 ‘法華類 6種’, ③ 『능엄경』과 그 다라니 및 『禪門拈頌集』 등 ‘禪宗類 3種’ 등에 集中되어 있는 特性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特性을 주목하고, 高麗佛教史에서 華嚴과 法華 및 禪宗을 동시에 아우르는 交集的인 人物은 오직 大覺國師 義天이 唯一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 전적 중 고려 목판본의 성격(正體性)은, 義天의 후예들인 ‘高麗後期 天台宗’과 깊은 관련성 및 그 蓋然性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었다.

넷째, 제4장에서는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 중 ‘16種의 조선시대 木板本’본의 入藏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 『법화경』을 비롯한 『觀世音禮文』 등 法華類가 ‘8種’, ② 『首楞嚴經』을 비롯한 『牧牛子修心訣』 등 禪宗類의 도서가 ‘4種’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의 경우처럼, 『화엄경』이 입장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法華類’와 ‘禪宗類’에 集中·局限되는 特性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고려 天台宗의 후예들이 朝鮮 禪宗의 法脈을 이어 받으면서 祇林寺를 수호하고 있었던 점에서 起因한 蓋然性이 농후하다. 따라서, 기림사 비로자나불 腹藏 전적 중 조선 前期 목판본의 성격(正體性)은 ‘고려 天台宗’을 이어받은 ‘조선의 禪宗’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요컨대, 기림사 비로자나불 복장본 중에서 고려시대와 조선 前期의 전적들을 書誌적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기림사는 ① 고려 시대에는 華嚴類와 法華類 및 禪宗類의 典籍들을 重視하고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高麗後期 天台宗 계열의 승려들이 住錫하였을 蓋然性이 농후하였다. ② 16세기

중기 以前인 조선 전기의 시대에는 法華類와 禪宗類 典籍들을 집중적으로 信奉하는, 이른바 조선 禪宗의 승려들이 이 祇林寺를 수호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참고문헌>

- 남권희. “『조상경』 판본의 서지적 연구.”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142-194.
- 남권희. “奉化 淸涼寺 乾漆藥師如來坐像의 陀羅尼와 典籍資料.” 『美術史研究』 제32호(2017). 35-73.
- 박용진. “義天의 佛敎思想.”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 이병욱. “운묵의 석가여래행적송에 나타난 회통사상.” 『불교학연구』(불교학연구회) 창간호(2000). 161-187.
- 이병욱 편저. 『의천』. 서울: 예문서원, 2002.
- 이병욱.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혜안, 2002.
- 이승혜. “중국 불상의 성물 봉안: 그 쟁점과 과제.”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96-113.
- 정은우. “우리나라 복장물의 형성과 특징.”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114-141.
- 정은우.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검토.” 『美術史研究』 제32호(2017). 7-33.
-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 研究』. 서울: 일조각, 1991.
- 천혜봉, 박상국. 『祇林寺毗盧遮那佛腹藏典籍調查報告書』.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8.8.
- 최동순. “원묘 요세의 碑銘에 내재된 사상 연구.” 『한국선학』 제21집(2008). 318-369.
- 최동순. 『원묘 요세의 백련결사 연구』. 서울: 정우서적, 2014.
- 최영진 外. 『한국철학사』. 서울: 새문사, 2009.
- 허홍식.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일조각, 1986.

[웹사이트]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59호>
- 문화재청(www.cha.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www.aks.ac.kr>>.
- 한국고전종합DB. <<http://www.itkc.or.kr>>.